

광주 어린이 12명이 창작한 ‘동심 담은 그림책’ 나왔다



어린이 작가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초등 3~5학년 어린이 작가 12명 직접 글·그림 창작

‘바다에서 만난 유령’ 등 그림책 12권 출판

광주 어린이 12명이 창작한 ‘알록 달록한 마음속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출판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도서관은 12일 무등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작가들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2026년 어린이 창작그림책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도서는 ‘바다에서 만난 유령’, ‘의자와 대명’ 등 12권이다. 이 그림책들은 무등도서관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에 참여한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12명이 각각 집필했다.

이날 행사는 ▲작품 전시·관람 ▲참여소감 발표 ▲창작교실 수료증(작가증)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어린이 작가 12명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작품 탄생 과정과 소회를 나눴다. 광주도서관은 ‘시민 출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을 운영, 2년간 총 24권의 그림책을 출판했다.

창작교실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마음 속으로 생각한 이야기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예쁜 책이 됐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럽다”며 “직접 만든 그림책을 소중히 생각하고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민정 광주도서관 문헌정보과장은 “참여 어린이들의 개성 있는 생각과 꿈이 멋진 그림책으로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작교실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이야기 구성부터 글쓰기, 그림 그리기까지 그림책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각자의 관심사와 일상에서 떠올린 이야기를 개성 있는 그림과 글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아이들은 창작 과정에서 서로

의 작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낯설었던 어린이들도 수업을 거치며 점차 자신감을 키워갔다. 완성된 그림책에는 어린이 작가들의 순수한 시선과 풍부한 상상력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족들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함께 살펴보고 출판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 작가들은 자신이 만든 책을 직접 소개하며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창작 의도를 설명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영 기자

기아, 집배 현장 맞춤형 PBV 개발해 우정사업본부에 공급

기아가 우정사업본부 집배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PBV를 공급한다.

기아는 11일(금) 우편물 수집·배달 등 집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PBV '더 기아 PV5(The Kia

PV5)' 카고 모델을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하고, 이달부터 전국 우체국에 총 200대를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공급되는 PV5 카고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다.

저상화 설계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 승·하차 시 신체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기아는 PV5 카고의 실제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사용자 대상 운영 실증

도 진행했다. 전국 9개 지방우정청 [1] 산하 거점우체국에 PV5 카고를 투입해 ▲차량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현장 설명회 ▲실제 집배업무 투입을 통한 업무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을 차량 개발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기아는 실증에 참여한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도출한 개선 의견을 토대로 PBV 컨버전 파트너십

을 통해 ▲도어 파손 방지 ▲카고 알루미늄 차 바닥 ▲적재함 평탄화 등 집배 현장 맞춤형 적재 솔루션을 차량에 적용해 우편물 이동과 적재를 한층 용이하게 했다.

기아는 차량 공급에 그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의 전기차 운영 환경 전반도 지원할 방침이다.

차량 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EV 교육을 비롯해 맞춤형 충전 솔루션, 정비 솔루션 등 우정사업본부의 전동화 전환에 필요한 전 분

야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단순히 차량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우편배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업무에 꼭 맞는 PBV를 구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고객 업무 특성에 맞춘 PBV로 공공 서비스 현장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전동화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